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제 이름은 돈입니다. 기독교인이지요. 이 소책자를 통해 여러분은 제가 십자가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곧 있으면 여러분 역시 이게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나 십자가에 폭 빠진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십자가는 커피를 마시는 머그잔에도,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에도, 심지어 비단 넥타이에도 새겨져 있지요. 저도 몇 개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저에게 특별하기까지 합니다. 한 친구가 러시아산 나무껍질을 엮어 만든 십자가를 선물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세계 곳곳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가로선과 세로선이라는 단순한 두 선으로 이루어진 십자가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많은 교회 건물 위에 자리를 잡았고 오랜 역사 동안 그려왔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자기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고 지난 수 세기 동안 십자가 목걸이는 사랑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도구였던 십자가가 이와 같은 유행을 선도해 온 것은 참으로 독특한 현상이지요. 그런데도 십자가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째서일까요? 교회는 왜 십자가를 주요한 상징으

로 채택한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같은 몇몇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 수많은 의문은 하나의 간단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십자가의 기초

십자가의 작용 원리에 덧붙일 특별한 설명도 없거니와 십자가만의 고문 방식을 재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 정치적 도구이자 사법적 도구로 출현한 것이지요. 2,000년 전, 로마인들은 지중해 주변과 그 너머의 모든 땅을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강화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지배력을

잃어버리면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든 위력을 행사하고 과시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지배력을 보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체제 유지의 일환으로 자행된 것입니다. 그때는 블로그도 없었고 신문도, TV 스크린 아래에 끝없이 이어지는 뉴스 자막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본보기 삼아 당신의 의도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말이지요. 당신은 이 일을 사거리 한복판에서 해야 할 겁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볼 테니까요. 로마의 지배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정말 우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도르래나 날카로운 칼날도 필요하지 않고, 전기나 가죽 끈이 필요하지 않지요. 두 개의 무거운 판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세로로, 다른 하나는 가로로요. 사형

수가 확실하게 죽도록 손과 발을 판자에 못박지만 (실제로는 질식으로 죽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준 후에야 비로소 죽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다지 복잡한 게 없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우리가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왜?”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에서 질식사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그 무거운 판자들을 상징하는 두 개의 가는 선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걸까요?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사람들이 로마의 형벌 도구 모형을 기꺼이 목에 걸고 다니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십자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하려는 메시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 전도자이자 선교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광범위한 지역에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극심한 고난을 감내했지요. 그는 전하려는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개역개정). 바울이 사용한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심으로 배치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특히 구약성서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다면 어떻게든 그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바울이 단지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십자가는 그저 순교에 관한 것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교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질식사하신 사실을 기념하고 전파해 온 것일까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긴요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지요. 예수님과 제

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무슨 결론을 내리는지 들으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 개역개정)”

여기서 그리스도, 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히브리 예언자들이 ‘오실 그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호칭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누군가를 보낼 것이고 그가 바로 ‘오실 그분’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해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란 “기름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오실 그 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이고, 바로 그래서 구원 사역에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자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 온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실 그분이시고 승리하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마가복음 8장 30-32절, 개역개정)”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이 드러내 놓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옳은 답을 했습니다만(아마 눈앞에 별이 반짝이면서 환상이 전개되었을 겁니다. 한없는 승리를 가져올 메시아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길이 끝없이 펼쳐졌겠지요) 그 또한 여전히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의 요점을 전하셨습니다.

다. “네가 한 말이 맞다. 그러나 곧 오실 그 분에 대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인자”라는 새로운 호칭을 대화에 등장시키는데요. ‘인자’는 오실 그 분께서 사람들의 고난을 짊어지실 분이라는 점을 예언자들이 부각하려던 의도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승리로 향하는 길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길은 고난의 땅을 반드시 지나가도록 이끕니다.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인자라고 부르는 것도 맞다. 그리고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선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요, 어찌다가 일어난 우연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건이었지요. 십자가는 승리로 가기 위해 계획된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난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다음과 같이 반발했습니다. “당신은 승리할 분이라고요! 고난 당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이었어요. 예언자 이사야가 오실 그 분에 관해 미리 내다보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5절, 개역개정)”

예언자 이사야에 따르면, 오실 메시아의 고난은 두 가지를 가져다줍니다. 평화와 치유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징벌”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채찍 자국(고난의 흔적)”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 그 분이라고 하더라도...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걸까요? 비록 그러한 희생이 선한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까요?

죄의 문제

수 백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오실 그 분이 고난을 받은 결과로 세상에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언이었지요. 평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세상 속 갈등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이어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질병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시어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셨다면 그들이 구원받아야 했던 것

등과 질병은 무엇이였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기를 태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갈등과 질병도 없었습니다. 한때 세상은 우아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를 돌보고 가꾸며 조화를 이루어 살았지요. 서로 사이 좋게 잘 지냈습니다. 마음에는 창조적인 일을 품고, 손수 힘써 일을 했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태초에는 갈등도 질병도 없었지요.

하지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조리하고 골치 아픈 일이었죠. 이 지구상에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꾸어 버린 일이었어요. 극심한 갈등과 은밀하게 퍼져가는 질병에 문을 열어주는 일이었지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본래 “죄”라는 단어는 단순히 “과녁을 벗어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과녁”은 그분의 창조를 즐거워하

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하나님과 평화로이 동행하며,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과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음을 초래하는 금지된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처음 의심하고서 바로 그 빛깔 좋은 열매에 눈길을 빼앗겨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과녁을 벗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부조리하고, 반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죄는 곧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죄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이지요. 아시다시피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은 유감스럽지만, 그에 응당한 결과에 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은 물론이고 영원에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가 일상의 삶을 깨뜨림

기독교인들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순간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불길하게 들릴 수 있으나 알맞은 표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 죄를 지은 순간은 마치 인류 역사에 균열이 생긴 것과 같지요. 그날 이후 모든 날이 그 이전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피조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했지요. 마치 피조 세계 전체에 균열이 생기고 일상의 삶이 바로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시작한 직후부터 그들은 다투기 시작했어요(더 이상 화목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고요, 땅에서 창조적으로 노동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대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아버지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

으며, 겸연쩍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죄는 일상의 삶을 깨뜨렸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검은 기름을 흠뻑 뒤집어쓴 새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일상을 망가뜨린 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꽤 경각심을 일깨우는) 비유가 될 것입니다. 새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아하고 가볍죠. 깃털은 정밀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공학적으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체중과 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해서 새가 날 수 있지요. 그건 정말 장관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또는 새 떼)를 보면 경외심이 일어나지요. 왜일까요? 그건 바로 새가 날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지요. 창조된 목적을 수행하는 새를 볼 때 경외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흠뻑 뒤집어쓴 새는 어떨까요? 정밀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깃털은 완전히 찢득거리며 망가졌고요, 무거워져 아래로 축 처졌지요. 기름을 덮어쓴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고요, 두 발로 서서 주변

을 걷는 것조차도 힘겹습니다. 체중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지지요. 주변 생태계도 같이 흐트러집니다. 먹을 만한 물고기나 곤충을 포식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어려워지지요.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타락 이후 인간의 상황을 적절히 그려본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서 이런 파괴적인 결과가 자연히 뒤따라오게 된 것이지요: 죄가 모든 피조 세계를 뒤엎고, 인간을 망가뜨렸습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창조주와의 관계도 망가뜨렸지요. 죄는 질병과도 같아서 모든 피조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요. 일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인간은 창조된 본래 모습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질병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느끼지요(사실 우리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를 씻어내고픈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름 덩이로 뒤덮인 새가 스스로 씻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사실, 이 기름에 뒤덮인 새의 비유와 인간의 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아셨듯이, 죄로 인한 질병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외양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정결 규례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 그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몸을 씻고 식사 전에 규례에 따라 손을 씻는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죄로 인한 질병이야말로 각 사람의 내면을 병들게 하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왜 식사 전에 정결 규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느냐’는 압박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가복음 7장 15절, 개역개정)”

이유를 재촉 받자, 예수님은 이야기에 생생한 묘사를 덧붙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마가복음 7장 18하-19상, 개역개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결 규례를 그다지 신경쓰시지 않았던 이유였지요. 하지만 사람들 내면이 병드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신경을 쓰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가복음 7장 20-23절, 개역개정)”

강렬한 단어의 나열입니다. 이 단어들이 인간의 본성

을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이 단어 목록에 등장하는 인간의 부적절한 행위들은 기름 덩이로 뒤덮인 새가 날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몸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라는 질병은 사람이 응당 창조된 고유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과녁을 벗어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죄의 파괴적인 영향을 일상에서 직접 느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어린 시절부터 저는 죄로 인한 타락과 질병이 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예리하게 인식하게 되었지요. 저는 제가 기름 덩이로 뒤덮인 새 같다고 느꼈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깊고 은밀한 자기 혐오가 자라났고, 그것이 결국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관계 맺는 방식을 오염시켰지요.

돌이켜보면, 이 자기 혐오 감정이 커지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전체를 거의 고립된 채로 보냈거든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낸 적도 있지요. 아무와도 말하지 않은 거죠. 점심시간은 최악이었어요. 저는 대체로 음식을 밖으로 들고 나가서 먹곤했습니다. 거기 가면 웃고 떠드는 사람들로 둘러 싸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있던 곳은 오리건 주였기 때문에 저는 빗속에서 점심을 먹는 날도 많았어요. 꽤나 슬픈 모양새였죠. 저도 압니다.

1학년이 끝날 무렵 저는 테니스와 스피치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관계의 씨앗을 몇 개 심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 절망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이성 관계를 키워나갔습니다. 2학년이 끝날 무렵, 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아하게 날아가는 새보다는 기름 덩이로 뒤덮인 새에 훨씬 가까웠지요. 죄는 일상의 삶에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지요. 죄는 영원의 삶에도 파괴적인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지요.

죄가 영원의 삶을 깨뜨림

죄는 당신의 하루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한 영적인 결과들이 울리면 영원에까지 반향을 일으키며 퍼져간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자연스러운 귀결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로마서 6장 23상, 개역개정)” 죄에는 “값(대가)”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이자 귀결은 죽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지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죄에는 당연한 결과, 즉 죄의 값(대가)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죄와 심판, 영원한 결과에 대해 말하는 것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청교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삶이 명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 됨을 감지하고, 우리가 벌어들인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일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입 밖으로 형언할 순 없으나 몸으로 느끼는 뚜렷한 감각으로 제 인생에서 제가 벌어들인 대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 저는 아파트 단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서 잠수하고 있는데 저의 친누나 비키가 수영장을 가로질러 헤엄치고 있었지요. 수영하는 비키를 보면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가냘프고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비키는 고작 38킬로그램이었어요. 그걸 본 순간, 비키가 너무나 기품 있고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새삼

되새기게 되었죠.

그때야 비로소 저는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던 것
입니다. 실은 그 주초에 우리는 모두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놀고 있었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
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비키가 뭔가를 말했고, 그
걸 오해해서 들은 저는 비키가 저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
랐죠! 저는 뛰어올라 비키를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했지요. 누나가 제 발차기를 막아낸 뒤에야 비
로소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잘못 듣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비키는 저에 대해
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지요. 그걸
안 순간, 저는 누나를 발로 차는 것을 멈추고 주저
앉아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서 며칠이 지난 후, 수영장 안에서 비키
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지요. 비키는 너무나

도 연약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잘못을 깨달았지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겉으로만 보고서 조용하지만 성공한 학생, 즉 유쾌한 십 대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저의 내면에는 죄가 있었고요. 무언가 대가를 치를 일이 생긴 것이었지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게 정의로우니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죄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우리는 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죄마다 대가가 뒤따르고 벌어들인 진노가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전합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정의로울 것이라 전하지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린도후서 5장

10절, 개역개정)”

성경에 따르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심판대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유죄이며, 이 점에 대해 우리 중 누구도 좋은 성적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장 23절,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가르칩니다. 인간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도록 만듭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영적 갈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로마서 2장 5절, 개역개정)”

하지만 이 정도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치

않다면, 성경이 말하는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로운 진노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죄는 그런 것이지요. 협상할 수도, 피할 수도, 가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죄가 초래하는 파괴적인 결과들은 협상의 여지조차 없지요. 이러한 우리의 곤궁함을 생각해 보면, 정전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정전기가 아주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형제 자매들은 발을 땅에 문지르듯 끌고 다닌 다음 서로에게 정전기를 통하게 하곤 했죠. 정전기 놀이는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족은 콜로라도로 이사했는데요. 콜로라도는 고도가 매우 높아서 공기가 아주 건조했지요. 그래서 발을 땅에 문지르면서 질질 끌 필요 없이 주변 환경이 이미 정전기로 가득 충전된 상태였습니다.

즉, 신체 일부가 아주 약간만 닿아도 아주 깜짝 놀랄만큼 고통스러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콜로라도에서 지낸 지 일주일도 채 못되어, 차에 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콜로라도에 살아본 적이 있다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차에 가서 문을 열려고 했죠. 황! 마치 번개가 금속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을 타고 영혼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차에 타러 갈 때 마다 매 번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전기를 없애려고 청바지에 손을 닦으며 노력했지만, 물리학은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기는 거기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금속(전기를 잘 전도하는 물질)에 접촉할 때까지 말입니다.

죄도 이와 비슷하지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로 가득 충전된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

리의 (이 세상이라는 카펫 위에서 저지른) 죄들은 정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요. 우리는 모두 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두가 유죄이지요. 그리고 누구도 영적인 세계의 물리학과 협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행을 통해서든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든) 죄로 인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들을 제거할 수 없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죄는 우리 문제의 근원이고요, 일상의 삶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하루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깨어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지요. 성경

은 우리의 나쁜 선택들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내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사야의 예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기록했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베드로전서 2장 24절, 개역개정)” 마치 금속이 정전기로 가득 충전된 물질이었던 것처럼, 십자가는 심판으로 가득 충전된 궁극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대가)을 지불하셨고 우리 이력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다시 가능하게 만든 것이지요.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근거”를 얻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빛과 그에 뒤따르는 파괴적인 결과들을 모두 떠안으시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골로새서 2장 14절, 개역개정)”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는 인자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했지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이사야 53장 5절, 개역개정)”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진노를 흡수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빛을 갚아 주신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역사는 다시 한번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등도, 심판도, 죄로 인한 책임도 모두 사라졌지요. 초대 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장 36절, 개역개정)” 평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하심을 얻지요. 영원히 용서받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골로새서 1장 20절, 개역개정)”이지요. 예수님의 희생이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을 기억해 볼까요? 오실 그 분께서 고난받으셔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움(치유)**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 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장 5절, 개역개정)” 여러분의 어깨에 커다란 배낭처럼 짐 지워진 죄의 굴레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 연합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치유의 효과가 세월이 걸쳐 나타나게 되지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새들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끈적한 기름을 완전히 씻어낼 방법이 있다는 것ですよ.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제 모든 죄로 인한 책임(고등학교 시절은 죄책과 진노라는 커다란 배낭이 없어도 충분히 힘든 시기이죠!)을 가져가시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만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얻게 될 치유를 천천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 마음속 자기혐오가 있던 자리에 자기혐오가 물러나고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저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치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밀한 구조를 지닌 새 깃털에 덕지덕지 끈적하게 묻어 있던 기름이라는 이물질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쉽거나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정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깃털에 묻은 기름을 부드럽게 매만져야 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진정으로 평화와 치유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점...그리고 나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걸까요? 주지하다시피, 역사 전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것을 바꾼 사건입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 이야기의 ‘핵심’, 즉 중심이자 구심점입니다.

“cruz”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이 흥미롭지요. 이 두 개의 무거운 널빤지가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숨겨놓거나 간과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십자가가 중심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십자가가 오늘날처럼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당연하고요! 제임스 S. 스튜어트라는 스코틀랜드의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현실을 통해 두 세상을 갈라놓은 깊은 골에 다리를 놓으셨고, 어두운 세력의 거대한 폭정을 산산조각 내셨으며, 인간의 전망과 세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급격하고도 영원히 바꾸어 놓으셨고, 생명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셨습니다.”(제임스 스튜어트, Heralds of God(하나님의 전령), 67)

물론 이러한 주장은 매우 거대하고, 우주적이며, 역사를 관통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독교인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눈앞의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장
16-17절, 개역개정)”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에게 십자가는 고대 예루살렘 바깥에서 발생했던 그저 그런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제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죄 없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지요. 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치유의 원천이기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십자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걸까요? 어두운 세력의 거대한 폭정을 산산조각 내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라는 한 사람에게는 평안과 치유를 내려주기 위함이었습시다.

십자가를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 저의 일상의 삶 속으로 갖고 들어온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자, 열쇠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장 36절, 개역개정)” 강력한 주장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법하지요. 다른 소책자에서 “예수 신앙이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마제국 압제의 폭력성에서부터 히브리 예언의 절묘함을 거쳐, 기름에 휘감긴 새, 정전기와 불안한 16세 소년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많은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다음의 집단적이고도 개인적인 질문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깊이 곱씹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돈 에버츠는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가 된 모험에 관해 12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작가입니다. 대학에서 활동하는 사역자이자 안수받은 목사이며 친근한 이웃인 돈은 25년 이상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루터란아워Lutheran Hour는 '루터교회 또는 루터교 교인들이 마련한 미디어 시간 또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지난 세기 초 미국 루터교 미주리 의회 평신도들이 설립한 루터란아워는, 세계 6개 대륙의 60여개 국가들에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한국루터란아워는 미국 루터란아워와 기독교한국루터회의 후원과 동역으로 후암동에서 범교단적 미디어선교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루터란아워 뉴스레터 구독 신청할시 혜택!

- 매 절기마다 판매부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루터란아워 <목상집> 출간 소식 받기
- 후암동 중앙루터교회 본당에서 한달에 한 번씩 무료로 열리고 있는 '정오음악회 클래식 콘서트' 소식 받기
-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강좌 소식 받기
- 다양한 책모임과 이벤트 및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소식 받기
-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절기에 따른 성경구절 읽고 묵상하기

루터란아워 뉴스레터 구독 & 후원하기

<https://linktr.ee/lutheranhour>

루터란아워 홈페이지에서 소책자를 pdf로 다운받으세요!

korealutheranhour.org/pdf

후원계좌

국민은행 098937-04-006221 [예금주: 한국루터란아워]



루터란이 말하는 예수님 I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루터란이 말하는 예수님 III

예수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루터란이 말하는 예수님〉 시리즈는

기독교한국루터회, 광주제자들교회, 대조동교회,

왕십리교회, 중앙교회, 팔복교회의 **인쇄비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독교한국루터회 info.lck.or.kr

광주제자들교회 gjjjd.lck.or.kr

대조동교회 cafe.daum.net/lckdj

왕십리교회 wslch.lck.or.kr

중앙교회 yes-luther.com

팔복교회 palbokluther.wordpress.com



루터란아워는 미디어를 활용해
교파의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를 모든 이에게 전하고
모든 이가 교회로 서게끔 일하는 평신도 중심의 선교단체입니다.

문의 : info@korealutheranhour.org
Copyright © 2023 by Lutheran Hour Ministries